

폴란드

◆ 폴란드, 경제정책 불균형에 대한 우려 더욱 부각돼

지난 1990년대 중반 연평균 6%대의 고도성장세를 지속하면서 폴란드는 성공적인 체제전환의 상징인 동시에 동구권 FDI 유치의 총아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기둔화의 증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외국인투자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 폴란드 경제의 우려되는 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외국인투자 유입 둔화

2001년 12월 말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토요타·푸조·시트로엥은 약 13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생산공장 입지로 체코의 Kolin을 최종 선정하였으며, 이는 폴란드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다. 폴란드는 중도좌파 정부가 집권한 지 두 달만에 FDI 유치 경쟁국인 체코에 큰 패배를 당한 것이다.

EU 가입을 앞둔 투자지로서의 이점에도 역동적인 내수시장의 활력으로 동구권으로의 외국인투자가 폴란드로 집중되었으나, 이는 내수시장에서의 경쟁격화를 초래하였고 경기침체까지 겹쳐 기업의 투자심리는 8년만에 최저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은 폴란드보다 체코, 헝가리 등 경쟁국으로의 투자를 늘리고 있는 실정이며, 다수의 투자기업들도 폴란드 투자 철수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제정책 불균형 심화

지난 1998년 이후 2000년까지 4%대에 머물던 경제성장률이 2001년 1%로 거의 성장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에도 큰 폭의 경제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의 성장둔화는 폴란드 수출의

〈표 1〉 동구 3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f
폴란드	49.1	63.7	72.7	93.4	64.0	61.0
체코	12.9	37.0	63.1	45.8	46.0	75.0
헝가리	21.7	20.4	19.8	16.9	24.3	19.0

자료: EIU, Viewswire, Feb. 2002.

70%를 차지하는 EU시장이 침체되는 등 외부 여건이 악화된 데도 이유가 있으나, 보다 우려되는 것은 폴란드 구조적인 경제정책 운용의 불균형에 기인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폴란드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있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과제는 바로 느슨한 재정정책과 엄격한 통화정책의 불균형에서 야기되는 경제불안인 것이다.

경상적자 확대, 물가불안 등을 이유로 지난 1999년 이후 강력한 금융긴축에 나선 중앙은행은 최근 1년간 무려 900bp의 금리인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물가와 국제금리 하락으로 폴란드의 실질금리는 아직도 1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과 정부는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인하를 주문하고 있으나, 정부의 이완된 재정관리를 우려해 온 중앙은행은 아직도 금리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폴란드 중앙은행 총재는 확실한 재정긴축,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 추가 규제완화 등 정부가 확고한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금리인하의 전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재정긴축, 노동시장 개혁 등의 사안은 정부의 의지만으로 하루아침에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현재 폴란드 경제구조상 경기부양에 직접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큰 폭의 금리인하가 유일한 실정이다.

정부 일각에서는 중앙은행의 완강한 태도에 대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제한하려는 입법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에 대해 IMF와 EU 등이 크게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 폴란드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高 載 昊】